

주택유형과 자가소유의 동학

윤일성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I. 연구목적과 대상

이 연구는 주택소비의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다룬다. 첫째, 주택유형과 주택점유형태를 다룬다. 네 가지 유형의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비주거용 주택)이 도시와 농촌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그리고 주택유형별로 주택점유형태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을 검토한다. 둘째,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자가소유율의 변화를 고찰한다. 전체 가구와 도시 가구를 비교하면서, 가구를 가구주의 직업에 따라 6개의 카테고리(전문직, 관리직/사무직/판매직, 서비스직/생산직/단순노무직/농림, 어업)로 분류한 다음, 직업군별 자가소유율 변화의 다양성을 분석한다. 셋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계층적 특성을 가구주의 직업이라는 변수를 매개로 하여 고찰한다. 현재 한국 사회 (혹은 서울 지역, 6대광역시 지역)의 아파트는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배분되어 있는가를 검토한다.

II. 주택유형과 주택점유형태

1. 주택현황과 주택유형

<표 1>은 2005년 주택유형별 주택재고 현황을 보여준다. 먼저 2005년 현재 한국사회의 주택 총 재고량은 13,222,641호이다. 총재고량의 75.6%에 해당하는 약 1천만호의 주택이 도시 지역에 있다. 1천3백만여호의 전체 주택 중 52.7%에 해당하는 약 7백만호가 아파트이다. 다음으로는 단독주택이 4,263,541호(32.2%), 연립과 다세대주택이 1,787,221호(13.5%), 비주거용(상가 등) 주택이 208,690호(1.6%) 있다. 아파트, 연립과 다세대주택은 도시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고, 단독주택은 도시와 농촌에 거의 절반씩 위치한다.

2. 주택유형과 주택점유형태

<표 2>는 전체 가구의 주거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택유형과 주택점유형태를 교차시켜 놓은 표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2005년 현재 전국에 13,222,641호의 주택이 있고,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수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5,670,271 가구이다. 1천5백6십여만 가구 가운데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의 56.1%에 해당하는 약 8백8십만호이다.

전체 가구(일반가구)의 22.3%는 전세로, 18.5%는 월세(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포함)로 거주한다.

주택유형과 주택점유형태를 같이 고려해서 보면, 단독주택에 사는 가구는 자기집에서가 아니라 세를 들어 사는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자가 46.5%, 차가(전세+월세) 50.2%). 반면에 아파트나 연립/다세대 주택에 사는 가구는 약 65% 정도가 자기집에 거주한다. 상가 등 비주거용 주택에서 사는 가구는 세 들어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표 1> 주택유형별 주택재고 현황, 2005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비주거용	합계
도시	2,124,135 (49.8)	6,122,716 (87.9)	1,599,811 (89.5)	150,870 (72.3)	9,997,532 (75.6)
농촌	2,139,406 (50.2)	839,973 (12.1)	187,910 (10.5)	57,820 (27.7)	3,225,109 (24.4)
전국	4,263,541 (100) (32.2)	6,962,689 (100) (52.7)	1,787,221 (100) (13.5)	208,690 (100) (1.6)	13,222,641 (100) (100)

자료: 2005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표 2> 주택유형과 주택점유형태: 전국 가구, 2005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비주거용	합계
자가	3,283,782 (46.5)	4,298,428 (64.8)	1,100,526 (64.9)	109,375 (38.8)	8,792,111 (56.1)
전세	1,659,086 (23.5)	1,372,486 (20.7)	412,784 (24.3)	54,683 (19.4)	3,499,039 (22.3)
월세	1,886,988 (26.7)	790,624 (11.9)	140,285 (8.3)	88,063 (31.3)	2,905,960 (18.5)
기타	234,272 (3.3)	167,455 (2.5)	41,834 (2.5)	29,600 (10.5)	473,161 (3.0)
합계	7,064,128 (100)	6,628,993 (100)	1,695,429 (100)	281,721 (100)	15,670,271 (100)

자료: 2005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표 3> 주택유형과 주택점유형태: 도시 가구, 2005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비주거용	합계
자가	1,561,046 (31.7)	3,910,896 (66.6)	995,177 (65.1)	80,321 (36.6)	6,547,440 (52.2)
전세	1,553,535 (31.5)	1,203,926 (20.5)	374,916 (24.5)	47,409 (21.6)	3,179,786 (25.3)
월세	1,681,536 (34.1)	640,621 (10.9)	126,777 (8.3)	72,698 (33.1)	2,521,632 (20.1)
기타	133,075 (2.7)	116,245 (2.0)	32,119 (2.1)	18,980 (8.7)	300,419 (2.4)
합계	4,929,192 (100)	5,871,688 (100)	1,528,989 (100)	219,408 (100)	12,549,277 (100)

자료: 2005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

<표 3>은 도시에 사는 가구만을 따로 떼어서, 주택유형과 주택점유형태를 교차시킨 표이다. <표 2>와 <표 3>을 비교해 보면, 도시 가구의 주거상황은 전국의 주거상황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도시 가구의 경우, 자기집에 사는 가구의 백분율이 52.2%로 전체 가구에 비해서 3.9% 낮게 나타난다. 이는 농촌 가구의 경우 자기집에 거주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일 것이다. 도시 가구와 농촌 가구를 다 합쳐서 자가소유율을 계산하면(2005년의 경우 56.1%), 도시 가구의 자가소유율을 상회하는 결과를 낳는다.

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시 가구의 경우,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자기집에 사는 경우가 더 많고, 단독주택이나 비주거용 주택에 사는 가구는 세를 들어 있는 경우가 더 많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특히 흥미롭다. 전국적으로 보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46.5%가 자기집에 사는 반면에, 도시 지역의 경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31.7%만이 자기집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도시 지역의 단독주택은 셋집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III. 자가소유의 동학: 가구주의 직업과 자가소유의 제 측면들

1. 가구주 직업분포(직종별)의 변화

1) 전체 가구

<표 4>는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전국 가구주 직업분포의 변화를 보여준다. 2005년 현재 가구주 직업은 전문직, 관리직 22.0%, 사무직 13.8%, 판매직 및 서비스직 16.8%, 생산직

24.2%, 단순노무직 8.1%, 농림, 어업 15.1%으로 분포되어 있다. (2005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2% 표본자료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직업분포는 전문직, 관리직 21.1%, 사무직 15.3%, 판매직, 서비스직 19.8%, 생산직 20.1%, 단순노무직 7.3%, 농림, 어업 15.8%이다). 가구주의 직업분포와 전체인구의 직업분포를 비교해 보면, 가구주의 경우 전체인구에 비해서, 생산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판매직 및 서비스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지난 20년 동안 가구주 직업분포의 변화를 살펴보면 몇 가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농림,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주의 비중이 많이 줄었다. 둘째, 전문직, 관리직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셋째, 판매직 및 서비스직과 생산직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줄고 있다.

<표 4> 가구주의 직업분포(직종별): 전국 가구주, 1985 - 2005

직업	1985	1995	2005
전문직, 관리직	9.2	23.9	22.0
사무직	11.9	9.2	13.8
판매직, 서비스직	21.9	17.5	16.8
생산직	30.3	28.2	24.2
단순노무직	-	6.9	8.1
농림, 어업	26.7	14.2	15.1
합계	100%	100%	100%
N	197,632	212,938	227,255

자료: 1985, 1995, 2005 인구 및 주택 센서스 2% 표본 원자료

2) 도시 가구

<표 5>는 1985년부터 2005년까지 도시 가구주 직업분포의 변화를 담고 있다. 2005년 현재 도시 가구주 직업은 전문직, 관리직 26.4%, 사무직 16.6%, 판매직, 서비스직 19.3%, 생산직 26.9%, 단순노무직 8.8%, 농림, 어업 2.1%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2005년 도시 가구주 직업분포는 전국 가구주 직업분포와 조금 다르다. 먼저, 농림, 어업에 종사하는 도시 가구주는 2.1%에 불과하다 (전국 가구주의 15.1%가 농림, 어업에 종사한다). 농림, 어업을 제외한 다른 직업군에 종사하는 도시 가구주의 비중은, 전국 가구주의 직업분포와 비교해 볼 때, 조금씩 높게 나타난다. 전국과 비교해 볼 때, 도시 가구주가 사무직, 판매 및 서비스직, 생산직에 종사하는 경우는 2.5% 정도, 전문직, 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는 4.4%가 높게 나타난다.

<표 5> 가구주의 직업분포(직종별): 도시 가구주, 1985 - 2005

직업	1985	1995	2005
전문직, 관리직	12.2	28.1	26.4
사무직	15.9	10.7	16.6
판매직, 서비스직	28.6	19.8	19.3
생산직	39.2	31.4	26.9
단순노무직	-	7.6	8.8
농림, 어업	4.2	2.5	2.1
합계	100%	100%	100%
N	125,345	163,534	167,966

자료: 1985, 1995, 2005 인구 및 주택 센서스 2% 표본 원자료

2. 자가소유율의 변화

1) 전체 가구

<표 6>은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전체 가구의 자가소유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 자가소유율은 인구 및 주택 센서스 2% 표본자료(1985년, 1995년, 2005년)를 분석하여 계산한 것이다. 첫째, 전체 가구의 자가소유율을 보면, 1985년 53.0%, 1995년 52.9%, 2005년 59.2%이다. 2005년 현재 한국 사회에서 10가구 가운데 6가구가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서 보았듯이, 2005 인구 및 주택총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 현재 전국의 자가소유율은 56.1%이다. 여기에 비해서 2% 표본자료를 통해서 나온 2005년 자가소유율은 59.2%로 3.1% 높게 나타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자가소유율의 추이를 보면, 1985년부터 1995년까지는 53% 정도로 자가소유율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10년동안 자가소유율이 6.3% 증가했다. 과연 지난 10년간 자가소유율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가소유율 증가에 영향을 끼친 요인들은 무엇인가? 이것은 차후의 중요한 연구과제로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이 표는 가구주의 직업별로 자가소유율의 현황을 보여준다. 2005년 현재 전체 가구주의 직업별 자가소유의 현황을 보면, 전문직, 관리직 56.7%, 사무직 53.0%, 판매직, 서비스직 48.8%, 생산직 54.2%, 단순노무직 49.5%, 농림, 어업 93.3%로 나타난다. 농림,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들의 자가소유율이 가장 높다. 100가구 중 93가구 정도가 자기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농림, 어업을 제외하면, 전문직, 관리직 종사자의 자가소유율이 가장 높다. 다음으로는 생산직, 사무직, 단순노무직, 판매직 및 서비스직 순으로 자가소유율이 높다. 생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자가소유율이 높다는 것과 판매직 및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가소유율이 가장 낮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셋째, 이 표는 가구주의 직업별 자가소유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1985년부터 1995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전체 가구의 자가소유율은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농림,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주의 자가소유율은 급격하게 상승했다. 다른 직업군을 잘 살펴보면, 전문직, 관리직 가구주의 자가소유율만 4.3% 상승했고, 나머지 직업군의 자가소유율은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1995년에서 2005년의 기간 동안에는 그 이전의 10년과는 다른 경향이 나타났다. 즉, 모든 직업군의 자가소유율이 증가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인 직업군은 생산직이다. 44.6%에서 54.2%로 무려 9.6%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농림,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자가소유율도 8.3% 증가했고, 사무직 가옥주의 자가소유율도 6.3% 증가했다. 지난 20년 동안 가구주의 직업별 자가소유율의 변화를 정리하면, 전문직, 관리직 가구주와 농림,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주의 자가소유율은 계속 증가한 반면, 사무직, 판매 및 서비스직, 생산직 가구주의 자가소유율은 1985년부터 1995년까지는 감소했지만, 1995년부터 2005년까지는 증가했다.

<표 6> 자가소유율의 변화(직종별): 전국 가구주, 1985 - 2005

직업	1985	1995	2005
전문직, 관리직	49.6	53.9	56.7
사무직	48.2	46.7	53.0
판매직, 서비스직	49.6	44.7	48.8
생산직	49.7	44.6	54.2
단순노무직	-	45.9	49.5
농림, 어업	62.8	85.0	93.3
전체 가구	53.0%	52.9%	59.2%
N	197,632	212,938	227,255

자료: 1985, 1995, 2005 인구 및 주택 센서스 2% 표본 원자료

2) 도시 가구

<표 7>은 1985년부터 2005년까지 도시 가구 자가소유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첫째, 도시 가구의 자가소유율은 1985년 47.7%, 1995년 45.5%, 2005년 52.7%이다. <표 6>에 나와 있는 전국 가구의 자가소유율과 비교하면, 도시 가구의 자가소유율은 6-7% 낮음을 알 수 있다. 가령, 2005년의 경우, 전국 가구의 자가소유율이 59.2%인데 반하여, 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의 자가소유율은 52.7%로 낮게 나타난다. 이는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기집에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도시 가구의 자가소유율 추이는 전국 자가소유율의 추이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다. 1985년부터 1995년까지 도시 가구 자가소유율은 감소했고 (전국의 경우에는 별 차이가 없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도시 가구 자가소유율은

증가했다. 후반 10년 동안 도시의 자가소유율은 7.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시 가구주의 직업별 자가소유 현황을 전국 가구주와 비교해 볼 때, 도시 가구의 자가소유율은 거의 대부분 낮게 나오지만 (단 하나의 예외는 2005년 전문직, 관리직 자가소유율임), 직업별 자가소유율의 상대적 크기는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즉, 전국 가구의 분포와 마찬가지로, 도시 가구의 경우, 농림, 어업을 제외한다면, 전문직, 관리직, 생산직, 사무직의 순서로 자가소유율이 높다.

셋째, 지난 20년 동안 도시 가구 자가소유율의 추이를 가구주의 직업별로 살펴보면, 1985년에서 1995년까지의 경우, 도시내 다른 직업군의 자가소유율은 감소한 반면, 농림, 어업과 전문직, 관리직은 각각 1.1%와 5.4% 증가했다. 1995년부터 2005년의 기간 동안에는 모든 직업군의 자가소유율이 증가했다. 지난 20년 동안 도시 가구의 직업별 자가소유율 변화 추이는 전국의 경우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즉, 전문직, 관리직과 농림, 어업의 경우 자가소유율이 계속 상승했지만, 사무직, 판매 및 서비스직, 생산직은 자가소유율의 부침을 겪었다. 첫 10년 동안 자가소유율이 하락했다가 다음 10년 동안 하락폭을 능가할 정도로 자가소유율이 증가했다. 특히 가장 부침이 심한 자가소유율을 보인 직업군은 생산직이다. 첫 10년 동안 자가소유율이 6.3% 하락했다가 다음 10년 동안 무려 12%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 20년 동안 전국과 도시에서 경험한 자가소유율의 부침은 중요한 연구과제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표 7> 자가소유율의 변화(직종별): 도시 가구주, 1985 - 2005

직업	1985	1995	2005
전문직, 관리직	47.3	52.7	57.0
사무직	46.0	44.7	52.5
판매직, 서비스직	46.9	41.7	46.6
생산직	47.6	41.3	53.3
단순노무직	-	41.1	46.0
농림, 어업	60.7	61.8	77.9
전체 가구	47.7%	45.5%	52.7%
N	125,345	163,534	167,966

자료: 1985, 1995, 2005 인구 및 주택 센서스 2% 표본 원자료

3. 직업별 주택소유와 주택유형

<표 8>은 가옥주의 직업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유형이 다양함을 보여준다. 전문직, 관리직 가구주와 사무직 가구주가 다른 가구주에 비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즉, 다른 직업군의 경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30% 이하이지

만, 전문직, 관리직의 42.2% 그리고 사무직의 38.8%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사무직 가구주와 생산직 가구주를 비교해 보면, 자가소유율의 경우 생산직이 사무직 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사무직이 생산직 보다 약 10% 정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단순노무직 가구주의 경우 아파트 보다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으며, 농림,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주의 경우 90%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단지 2%만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직, 서비스직 가구주는 다른 직업군보다 비주거(상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직업별 주택소유와 주택유형: 전국 가구주, 2005

직업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비주거 (상가)주택	자가 소유율
전문직, 관리직	8.4	42.2	4.9	0.9	56.7
사무직	7.4	38.8	5.8	0.8	53.0
판매직, 서비스직	14.2	26.0	6.7	1.7	48.8
생산직	14.3	29.7	9.7	0.5	54.2
단순노무직	21.9	17.6	9.5	0.4	49.5
농림, 어업	90.0	2.0	0.7	0.3	93.3

전체 가구 = 227,255

자료: 2005 인구 및 주택 센서스 2% 표본 원자료

4. 누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가?

1) 아파트 소유자의 직업분포: 전국, 서울, 6대광역시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전국의 아파트 수는 2005년 현재 6,962,689호이다. 서울의 아파트 수는 1,258,658호이며, 6대광역시에 있는 아파트 수는 2,006,241호이다. 경기도의 아파트 수는 1,707,868호이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수는 3,363,006호이며, 이는 전국 아파트의 48.3%를 차지한다(통계청, 2005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제3권 주택편, 2006).

대한주택공사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다양한 형태의 임대아파트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6백만호를 넘는 민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어떤 일을 하는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아파트를 소유하는가? 한국의 아파트는 어떤 계층의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분배되었는가? 여기서는 비록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지만,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한다.

<표 9>는 아파트 소유자의 직업분포에 관한 표이다. 2005년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가

구 중 자기 소유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가구주의 직업별 분포이다. 먼저 전국 아파트의 소유 분포를 보면, 33.2%를 전문직, 관리직 가구주가 소유하고 있으며, 아파트의 25.7%를 생산직 가구주가, 19.2%를 사무직 가구주가, 그리고 15.7%를 판매직, 서비스직 가구주가 소유하고 있다. 6대광역시에 있는 아파트의 소유현황은 전국 아파트의 소유현황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전국 아파트의 소유현황과 서울 아파트의 소유현황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이다. 첫째, 서울의 아파트는 전문직, 관리직에게 더 많이 배분되어 있다. 전국 아파트의 33.2%를 전문직, 관리직이 소유하는 반면에, 서울의 전문직, 관리직은 서울 아파트의 41.7%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서울의 아파트는 생산직 종사자에게 더 적게 배분되어 있다. 전국 아파트의 25.7%를 생산직 종사자가 소유하는 것에 반해, 서울 아파트의 14.8%만 생산직 종사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표 9> 아파트 소유자의 직업분포: 가구주, 2005

직업	전국	서울특별시	6대광역시
전문직, 관리직	33.2	41.7	32.5
사무직	19.2	22.2	17.0
판매직, 서비스직	15.7	17.5	15.6
생산직	25.7	14.8	28.9
단순노무직	5.1	3.7	5.4
농림, 어업	1.0	0.2	0.6
전체가구	100%	100%	100%
N	63,428	11,275	20,085

자료: 2005 인구 및 주택 센서스 2% 표본 원자료

2) 규모별 아파트 소유자의 직업분포

아파트를 소유한다고 해서 모두 같은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별로, 아파트의 규모별로 아파트의 재산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아파트가 규모별로 볼 때 어느 사람들에게 배분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10>은 전국의 아파트를 10평 단위로 분류하여, 작은 아파트에서부터 큰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규모별로 아파트가 어떤 사람들에게 배분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보면, 20평 이상의 아파트는 전문직, 관리직에게 가장 많이 배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30평형대를 넘어가면 전문직, 관리직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30대평형의 50%, 40대평형의 62%, 그리고 50대이상평형의 74%를 전문직, 관리직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미만의 평형의 경우 사무직이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점과 20대평형의 경우 생산직이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점도 재미있는 현상이다.

<표 10> 규모별 아파트 소유자의 직업분포: 전국 가구주, 2005

직업	10평미만	10-19	20-29	30-39	40-49	50평이상
전문직, 관리직	21.7	22.3	33.0	49.9	62.1	74.0
사무직	28.3	18.5	20.8	18.2	15.3	9.6
판매직, 서비스직	19.6	15.5	16.0	16.7	14.3	10.5
생산직	26.1	35.2	24.5	12.1	6.9	4.8
단순노무직	4.3	7.4	4.6	2.3	0.8	0.5
농림, 어업	0.0	1.1	1.1	0.8	0.6	0.6
전체가구	100%	100%	100%	100%	100%	100%
N = 63,428	46	22,482	29,822	6,385	3,708	985

자료: 2005 인구 및 주택 센서스 2% 표본 원자료

IV. 결론

이 연구는 주택유형과 주택점유형태의 모습을 검토하고 난 다음, 지난 20년 동안 자가소유율의 추이를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 연구는 가구주의 직업을 여섯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주택소비 특히 자가소유의 몇 가지 모습을 분석하였다. 도시연구에서 주택과 계급계층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몇 가지 논쟁을 거듭하면서 심화되어 왔다. 주택소비의 다양한 모습을 계급계층론적 관점으로 분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 연구는 계급계층론적 관점으로 주택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이다. 보다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